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5(土) 소나기 24 / 33℃	6(日) 구름맑음 24 / 32℃
-------------------------	--------------------------

News

- 대법 "영장발부 신중히" ②
- 바둑 영재들의 여름나기 ③
- 추신수 ML 첫 만루포 ⑧



Jeollado

- 풍수-서해안 거점, 무안 ⑦

Entertainment

- 뮤지컬 스타 '전성시대' ⑧
- 화제의 영화 책으로 본다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포도 ⑬



“청년실업? 우린 전원취업”

■ 신바람 가득한 전남도 조선기능인력 양성 현장

“한시라도 빨리 일터로 가고 싶어요. 내 손으로 직접 배를 만들고 월급을 받아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네요.”

가로수 일터 축축 늘어지게 만드는 땀방울이 내리쳐던 지난 2일, 무안군 청계면 한국폴리텍V목포대학(구 목포기능대학·학장 김태평)에서 전남도 주관 조선기능

과 큰 보탬이 됐다. 타 지역 출신 훈련생에게는 기숙사도 제공됐다. 정씨와 나이가 똑같고 역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정씨도 “직장을 그만 둔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환한 표정이었다.

4년제 대학을 버섯이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족 친지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야 했던 젊은이들. 예전의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가계가 힘들었던 주부 등 훈련생들은 전남도의 조선기능인력 양성훈련을 받으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정 씨를 비롯해 지난 5월 10일부터 3개월동안 용접, 배관, 절단 등의 조선기술을 배운 100명의 1기 훈련생들은 ‘Q2’(국제선급 자격증)를 얻어 전원 취업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잡았다. 이들은 지난 3일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새로운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조선을 비롯해 현대삼호중공업 사내의 협력업체 등 17개 업체와 취업약정을 마쳤다. 급료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연봉은 최고 2천만원 선이다. 3개월 전까지만해도 삶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때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훈련 실무책임자인 김재휴 전남도 투자유치팀장은 “지역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떠오른 조선산업 관련업체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오는 2008년까지 9억 7천만원을 들여 매년 450명씩 모두 1천 350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올해 3기 교육생은 10월 중 모집한다. (문의 061-286-3043~4)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오는 9일부터 전원 취업하는 전남도 조선기능인력 양성 훈련생들이 막바지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주부 정 영(앞줄 왼쪽)씨와 이정 미(오른쪽)씨의 표정이 환하다. /위지령기자 jwji@kwangju.co.kr

나주 36.9도

목포 열파지수 ‘위험’

나주의 어제 낮 기온이 36.9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목포 주변 전남 남부지역의 열파지수(습도와 기온이 복합돼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기온을 지수화한 것)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3면〉
체온을 돌파한 이같은 대낮 무더위는 연일 계속되는 도심 열대야 현상과 함께 당분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각 지방이 올 여름 최고기온을 돌파한 4일 화순과 광양은 36.5도, 순천 35.5도, 담양 34.9도, 광주 34도, 목포 33.7도 등을 기록했으며 전국 최고기온은 경북 의성의 37도였다.

열파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주의’(90~104 사이)를 보여 강릉 94, 서울 99, 수원 101, 전주 104, 대전 100, 부산 98, 안동 100 등에 달했고 목포, 부산, 상주, 장흥은 105로 ‘위험’(105~129) 지수였다.

◇열파지수=불쾌지수는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 정도를 나타내지만 열파지수는 신체활동에 따른 위험가능성을 지수화한다.

더운 정도에 따라 ‘안전’(79 이하), ‘주의’(80~89), ‘매우 주의’(90~104), ‘위험’(105~129), ‘매우 위험’(130 이상)의 5단계로 구분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노대통령 ‘문재인 법무’ 강행 수순

北, 첫 수해지원 요청

靑 인사수석 “여당의 인사간섭 옳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임 법무장관에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져 당·청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문재인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할 경우, 탈당 등 중대 결심을 함께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친노-비노 의원들간의 분열이 예

상되고 있어 여권의 분열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4일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인사권은 대통령직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단 하나의 권한”이라며 “이제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때이며 생각이 같고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을 장관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와대측의 기류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친노-비노 의원들간의 갈등 기류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전 수석에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언질을 했다는 설 등을 거론하며 노 대통령이 문재인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밀어부친 뒤 추후 국회 반응에 따라 정치적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부 참여 방안 적극 검토

중국 라오닝(遼寧)성에 나와 있는 북한 김성원 단둥(丹東)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대표부 대표는 4일 남한 정부가 정치적 목적 없이 진정으로 돕는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수해를 입은 북측 지역에 지금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쌀”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금은 북한이 지난날 중순 수해가 발생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민간단체의 북한 수해 복구 지원을 돕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구호품에 쌀이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대북 수해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조만간 지원을 요청하면 이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민간이 지원하는 규모에 맞춰 정부의 지원금을 정하는 매칭펀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동양지축은행 장학 56년 역사인 전통
광주·전남·전북·전라남도·전라북도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 남부대학교 062-770-1111 ▶ T.062-770-1111
새로운 장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남부대학교 062-770-1111 ▶ T.062-360-5000

100년의 사람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김동원